

“전기·가스 요금 인상...물가 상승 압력 작용”

전기·가스비 인상...연간 물가 상승률 0.1%p 효과 엔데믹에 따른 소비 회복도 물가 오름세에 영향

한국은행이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의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유로 지역에 비해 전기료·도시가스 요금 등이 점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향후 근원물가에 추가적인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전기요금

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했다.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총 7400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행은 이달 초 ‘금융·경제 이슈 분석(6월)’을 통해 주택용 요금 인상에 따른 직접적 영향 외에도 산업용 전기요금과 영업용 도시가스요금도 인상으로 원가부담 증가를 통한 물가상승압력이 커지는 간접적 영향에

따라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0.1%포인트(p)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한 바 있다.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민간 소비의 회복세도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은 “서비스 소비가 팬데믹 효과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노동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물가상승 요인으로 가세할 것”이라고 봤다.

팬데믹 효과는 억눌려온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으로 코로나19 엔데믹(종식 선언)에 따른 소비 회복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비용상승의 2차 파급영향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내외 리스크 요인 상으로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서비스 소비가 팬데믹 효과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노동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물가상승 요인으로 가세할 것”이라고 봤다.

팬데믹 효과는 억눌려온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으로 코로나19 엔데믹(종식 선언)에 따른 소비 회복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비용상승의 2차 파급영향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내외 리스크 요인 상으로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포스코, 전체 그룹사로 확대

포스코그룹이 ‘그룹CP활성화지원 TF’를 조직하고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전체 그룹사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4월 ‘그룹 CP 활성화지원 TF’를 발족하고 손그룹사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조기 정착을 위한 코칭과 정책방향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업무지원활동을 시작했다.

포스코그룹의 ‘그룹CP활성화지원 TF’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엔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플로우 등 5개 그룹사의 CP전문가로 구성되어, 기존 CP를 운영하고 있는 20개 그룹사의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포스코HY플린메탈,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최근 신설된 그룹사를 포함한 16개 신규 CP 도입 예정 그룹사를 선정해 체계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기업문화로의 정착을 위해 맞춤형 코칭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그룹사의 협력회사에 대한 도입 절차, 정책방향 등을 적극 설명해 업계 전반에 CP확산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고용 2.5% 증가 현대차, 직원 1만명 늘어

지난해 국내 대기업 집단(그룹) 중 현대차가 1만명 이상 직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쿠팡은 2만명 넘게 줄여 고용 성적 회비가 엇갈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지정한 82개 그룹의 지난해 고용은 전년 대비 4만명 정도 증가했다. 이는 2021년 76개 그룹이 6만명 이상 일자리를 늘린 것에 비하면 적은 수치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2개 그룹 대상 2021~2022년 고용 변동 분석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올해 공정위가 지정한 82개 대기업 집단 내 국내 계열사는 3076개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전체 직원수는 176만2391명으로 전년 171만9410명에 비해 4만2981명(2.5%↑) 많아졌다. 이는 2020년 대비 2021년 기준 76개 그룹에서 늘린 6만 3740개(39%↑) 일자리보다는 적은 숫자다.

직원 일자리가 늘어난 52곳 중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현대차’로 확인됐다. 현대차그룹은 2021년 17만 4952명에서 지난해 18만 8891명으로 1만 3939명 늘었다.



이른 더위에 물놀이용품 매출 증가 이른 더위에 수영복 등 물놀이 관련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7월 6일 마켓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여성 수영복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8%, 남성 수영복은 143% 증가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물놀이용품이 진열돼 있다. /뉴스1

한옥·곰탕·낙시·오토캠핑...“전남 체류형 촌캉스 즐기세요”

전남도, 고흥·나주·장성·함평 6월 체험관광지 추천

전남도가 시골 정취를 만끽하는 6월 ‘전남 촌캉스’ 추천 관광지도 고흥 해장만오토캠핑장, 나주 목사내아, 장성 청백한옥, 함평 주포한옥마을을 선정했다.

고흥 해장만 오토캠핑장은 간척지에 조성한 수변공원에 자리하고 있다. 오토캠핑장 21면, 일반캠핑장 27면, 글램핑장 14동이 조성됐다.

캠핑장은 넓은 간척지와 바다 사이에 위치해 마치 바다 한 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바다를 둘러싼 산책로는 해장만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 명소다. 가까운 선착장에서 낚시를 즐기며 어촌 정취도 만끽할 수 있다.

나주 목사내아 금학헌(琴鶴軒)은

조선시대 나주를 다스리던 목사가 살았던 가옥을 2009년 복원해 전통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학헌은 ‘거문고 소리를 들으며 학처럼 고고하게 살고자 하는 선비의 정신이 깃든 집’이라는 뜻이다.

하룻밤 머물며 조선시대 상류층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목사내아를 500년간 지킨 팽나무는 소원이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좋은 기운을 받고자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목사내아 바로 앞 곰팡거리에서 곰탕의 원조 ‘나주곰탕’을 맛볼 수 있다. 맑을정(淸)·흰백(白)자를 쓰는 장성 청백한옥은 ‘맑고 깨끗한 집’이라는 뜻으로 조선 3대 청백리로 알려

진 박수광 선생의 청빈함을 전해들은 명종이 후손들에게 하사한 집을 2010년 중건한 한옥체험관이다. 안채·사랑채·행랑채 등 15객실로 이뤄졌다. 홍길동테마파크에 위치하고 있어 홍길동생가·산채체험장·전통 무술·국궁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함평 주포한옥마을은 주포항과 돌머리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서해안의 정취를 느끼며 한옥 민박 체험이 가능하다.

마을에서 보이는 함평만의 낙주는 낭만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잘 가꿔진 꽃, 나무와 담장을 따라 산책을 하며 고즈넉한 한옥마을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인근에서 달근 유향 돌을 바닷물에 넣어 만든 수증기를 쬐는 함평의 전통해수찜질로 일상의 피로를 날려버릴 수 있다. /권형안 기자

한전·중기청, 광주전남 전통시장·소상공인 에너지 컨설팅 지원

광주전남중기청, 4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8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 광주시 상인연합회 등 4개 기관과 에너지 컨설팅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초 발발해 지금까지

지속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국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에너지 컨설팅 지원이 추진됐다.

이는 지역 공공기관 간 협력으로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컨설팅을 지원하는 최초 사례이다.

에너지 컨설팅은 지난 4월부터 5월초까지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고 9일 광주시 동구 소재 대인시장에 입점한 12개 점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에너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한전의 에너지 전문가는 업체를 방문하기 전에 해당 업체의 최근 3년간 월별 전력사용량, 계약전력, 전략용 유형 등을 분석한 뒤 업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업체 현장에서는 냉난방기, 냉장고 등 에너지 사용기기·설비를 점검하여 누전·대기전력 유무, 기기·설비 가동상태 등을 진단한다.

진단을 마친 뒤 현장에서 업체별 적정 계약전력 구간 안내, 설비 유형별 절약·사용 수칙 등을 안내하고 전기요금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권형안 기자

5월 광주·전남 주식거래대금 급감

매수거래대금 3조2048억...전월대비 40.53% 감소

지난 5월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대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23년 5월 광주전남 증시 동향에 따르면 매수거래대금은 3조 2048억원으로 전월대비 40.53%(조 1841억원) 감소했다. 매도거래대금은 3조 3018억원으로 전월대비 18.72%(조 2858억원) 줄었다.

코스피에서는 매수거래대금이 전월대비 37.67%(9562억원), 매도거래대금이 34.63%(8929억원) 각각 감소했다.

코스닥에서는 매수거래대금 43.08%(1조2278억원), 매도거래대금 42.47%(1조1929억원)이 각각 줄었다.

전체 대비 광주·전남 투자자의 매수거래대금 비중은 0.78%로 전월보다 0.13%포인트 감소했다. 매도거래대금 비중은 0.8%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감소했다.

코스피 주요 거래종목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등을 매수하고,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등을 매도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을 매수 및 매도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전체 시가총액은 19조7513억원으로 전월 대비 1.3%(2584억원) 증가했다.

코스피는 1.06%(1840억원), 코스닥은 3.41%(744억원) 각각 증가했다. 코스피에서는 한국전력(2,567억원, 2.14%), 금호타이어(588억원, 4.56%) 등이 증가했고 한전KPS(-43.08%, -4.76%), 조선내화(-520억원, -13.20%) 등이 감소했다.

코스닥은 남화토건(180억원, 17.62%), 위니아(87억원, 12.67%) 등이 증가했고 위니아에이드(-60억원, -6.55%), 박셀바이오(-53억원, -0.88%) 등이 감소했다.

/권형안 기자

광주식약청, 여름철 대비 수산물 안전점검

수산물 도매시장·횃집·수산시장 등... 9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은 여름철에 대비해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바닷물 온도가 18°C 이상으로 상승하는 초여름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증식 등 식품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도매시장과 온·오프라인 수산물 판매업체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보관기준 준수, 수산물 취급자의 개인 위생관리 등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생식용 어패류를 수거해 비브리오패혈균 검사를 실시

하고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한 예방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여름철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주요 항·포구와 바닷가에 식중독 검사 차량을 배치해 주변 횃집과 수산시장 등의 수족관물을 수거해 비브리오패혈균 검사도 실시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횃집은 오프라인 수산물 판매업체를 위해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고 칼과 도마는 머리·내장·껍질 제거용과 횃집용을 구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형안 기자

전남, 소상공인 디지털기 전환 지원

오는 30일까지 접수...서빙로봇 도입비 등 최대 200만원



전남도는 정보통신·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 디지털기 지원을 통한 인건비 등 생산원가를 절감토록 하는 ‘디지털 소상공인 1만양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일 현

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오더, 디지털 메뉴보드, 서빙로봇,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도입비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개인신용정보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500개소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중소기업지원과나 시군 소상공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목포대와 협력해 디지털 전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판로 실습 및 디지털 기기 운용 교육생을 실시 모집하고 있다.

/권형안 기자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 받으세요

전남도 산림자원 연구소는 오는 14일 연구소 치유센터 회의실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20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한다.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자 및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11일까지 전자우편(sei0809@korea.kr)이나 팩스를 이용해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12일 교육생을 최종 확정한다.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1회 미수 시 10% 감액, 2회 20% 감액, 3회 이상 40% 감액 지급한다.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은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남도 산림바이오과(061-338-4266)로 문의하면 된다.

/권형안 기자